

# 범여권 정계개편 논의 본격화

열린우리당이 정당대회를 성공리에 마치고 대통합신당 추진을 공식 결의한 데 이어 민주당도 제3지대에서의 신당 창당으로 정계개편 방향을 가닥 지었다. 여기에 여당 탈당파인 '중도 통합신당 모임'도 오는 5월까지 통합신당 창당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정계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의 대통합추진기구 구성에 따라 여당발 정계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2차 탈당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늦어도 3월 말까지는 대통합 연석회의 등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기 위해 제 정파들과 본주한 물밑접촉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민주당도 정계개편의 방향을 가닥 지으며 통합신당 창당에 본격적으로 나설 태세다. 민주당 중도개혁세력통합추진위원회는 지난 13일 저녁 서울 올림픽 파크텔에서 워크숍을 갖고 '제3지대에서의 교섭단체 구성을 통한 신당 창당 방식'으로 정계개편 방향을 가닥 지었다.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당적을 유지한 채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과 연대해 구락부 형태로 제3지대에 교섭단체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제3지대 교섭단체가 모태가 되고 국민중심당이나 시민사회 진영 등 외부의 제3세력이 합류해 통합신당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우선 연대 대상으로 추가 탈당 가능성이 있는 여당 내 재선 그룹을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에

## 우리당, 전대서 대통합신당 결의 민주당, 제3지대서 신당창당키로 중도통합, 5월까지 신당창당 완료

탈당한 '중도 통합신당 모임'이나 '민생정치모임' 의원들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열린우리당과는 통합 논의를 같이 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한편, '중도 통합신당 모임' 소속 의원 23명은 14일 광주를 방문,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25일 치러질 보궐선거는 백지상태이지만 오는 7~8월에 오픈프라이머리로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해 5월까지는 신당 창당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이달에는 정치권과 정저권 외곽의 접촉 가능한 인사들을

개별 접촉한 뒤 3월부터 지역별로 토론회 등을 개최, 중도개혁통합정당 추진의 당위성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후에 제세력이 연대하는 신당 창당 원탁회의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중도개혁 통합신당 준비위원장이 이강래 의원은 통합의 원칙과 관련, ▲수구 방진, 급진 좌파 배제 ▲기득권 포기 ▲이질성 보다는 동질성 찾는 자세 ▲과거보다는 미래지향적 태도 ▲덧셈과 곱셈의 정치 지향 등을 꼽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열린우리당을 탈당, '중도개혁 통합신당' 추진 모임을 결성한 국회의원 23명이 14일 오후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 참배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세탁기 등 78개 품목 관세 즉시 철폐

김중훈 대표 "6자회담으로 개성공단 관련 협상 여건 호전"

한미 FTA 7차 협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7차 협상 사흘째인 13일(현지시간) 공산품 관세 분야가 소폭 진전을 보이면서 상품무역 분야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

우리측 핵심 요구 중 하나였던 개성공단 제품 원산지 특례인정 논의도 6자회담 타결에 힘입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양측은 이날 상품무역과 원산지, 통관, 의약품, 금융, 투자 등 모두 17개 분야 및 작업반 회의를 열고 절충안을 모색했다.

특히 상품무역 분야에서는 양측이 일부 중간단계 품목의 관세철폐 이행시기를 앞당기는데 합의했다.

이해민 상품무역분과장은 "미국이 교육역 5억달러 규모 상품의 철폐기간을 앞당겼고 이중 78개 품목은 즉시 철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며 "세탁기와 브라운관 TV의 관세는 즉시 철폐하고 LCD모니터는 관세철폐

기간을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앞당겼다"고 말했다. 우리측도 4억달러 상당 품목의 관세철폐 이행시기를 앞당겼다.

그러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 민감품목은 아직 미합의 상태로, 현재 미국의 자동차 관세 조기철폐 문제는 우리측의 배기량 기준 세제 개선 등과 함께 수석대표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 그는 "이번 협상에서 상품 무역 분야의 관세 양허(개방) 개선은 실질적으로 끝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6자회담의 진전이 개성공단 제품 원산지 특례인정 문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여건이 좋아질 수 있다"고 기대감을 표시하고 실무 협상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계속 요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은 전날 고위급 협상에 이어 분과회의가 개시된 섬유분야에서 200여개 품목의 즉시 관세철폐를 비롯해 전 품목의 5년내 철폐라는 우리측 요구안을 일부 수용하는 내용의 수정 양허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남스

# 정인봉 "이명박 X파일 공개"

## 특보직 사퇴 후 이르면 오늘 회견

'후보 사전 검증'을 둘러싼 한나라당의 분란이 간단치 않다. 새해 벽두 박근혜 전 대표측에서 '검증'을 처음 제기한 뒤 '신경전' 수준으로 시작됐던 공방전은 박 전 대표의 법률특보인 정인봉 변호사의 자료 공개 언급 이후 난타전 수준의 '전면전'으로 비화됐고, 급기야 당이 '내홍'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 주말 이명박 전 서울시장 이 "당내에서 조직적으로 나를 음해하고 있다. 9대1로 싸우고 있다"고 격노한 뒤 공방전은 기초로 선 회한 이 전시장장은 '박 전대표 캠프의 조직적 음해론'을 부각시키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 전 시장의 핵심측근인 정두언 의원은 14일 "이 모든 일은 여론 반전을 위해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의해 정치공작적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음해공작으로 밝혀질 경우 정 변호사 개인은 물론, 박 전 대표 캠프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국을 방문중인 박 전 대표는 정 변호사의 행태에 대해 일단 "몰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박 전 대표는 이 전 시장측의 '흑색선전' 주장에 대해서는 "네거티브와 검증은 다른 것"이라며 "네거티브는 있지만 사실로 상대를 비하하고 흠집 내는 것이고 그런 것을 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는다"고 반박했다. 검증에 자신이 있다는 말로 들렸다.

윤리위에 회부된 정 변호사도 "당에 자료를 제출하고 곧바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박 전 대표에게 부담이 된다면 법률특보직을 사임하고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의지도 주변에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국면의 한복판에서나 불수 있었던 '문건 공방'도 등장했다. 박

전 대표측의 지난 5일 회의자료로 보이는 문건이 유출된 것. 문건에는 15명의 박 전 대표측 핵심관계자가 참석한 것으로 돼 있으며, 내용 중에는 'MB(이 전시장)와 관련된 부정적 이야기들(말실수, 지나친 학연, 개발독재적 이미지 등)이 구전되고 있으니 통,바리 등 하부단위까지 전파할 수 있는 조직구성 이 필요하며 비자파 지역의 경우 새마을 단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 적시돼 있다.

양측간 공방이 심화되면서 당내 기류도 심상치 않다. 이명박 당 윤리위원장이 정 변호사의 윤리위 회부와 관련해 박 전 대표의 측근이자 윤리위원인 유승민, 이해훈 의원의 교체에 당 지도부에 요구한 데 대해 당사자들이 "윤리위를 친이(親李)로 채우겠다는 것이냐"고 강력 반발하면서 인 위원의 교체까지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 국립 5·18 묘지 첫 참배 정형근의원 "참배 앞두고 밤잠 설쳤다"

한나라당 내 대표적 극우파인 정형근 최고위원이 14일 전격적으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정 최고위원이 5·18 묘역을 참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날 참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저의 반흔 남 브랜드 상징성 때문에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에 대해 언론이 많은 관심을 가졌다"며 "이번 방문이 영 호남 화합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광주 신앙파크호텔에서 열린 한나라당 광주시 당 주체 정책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한 정 최고위원은 "참배를 앞두고 잠을 설쳤다. 두렵고 경건하게 참배하겠다"며 이같이 광주 5·18 묘역 참배의 소회를 밝혔다.

그는 "호남지역의 반 한나라당 정서는 민정당 때부터 비롯된 태생적인 것"이라며 "박정희-김대중 두 전 대통령의 대결구도가 장기화되면서 고착화, 강화된



정형근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14일 오후 참배를 위해 국립 5·18 민주묘지 입구에 들어서자 남춘원 소속 학생들이 5월 영령들은 분노한다'고 쓰인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민주당 4월 3일 개최

민주당 전당대회가 오는 4월3일 개최된다. 민주당은 14일 중앙당에서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오는 4월 3일 제5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기로 했다.

특히,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는 다음주부터 지도체제 개편 문제를 집중 논의, 늦어도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지도체제는 현재의 단일지도체제와 대의당 대의원 대회 소집 당헌을 25일 전으로 변경했다.

특히,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 공인중개사

EBS교육방송  
저자적강  
출제위원급  
최고교수진

제10회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3월 2일 첫진도 개강

전국수석 배출  
전국최다합격자 배출

본원 227-8003  
첨단점 971-0002

### 희소식 수료 한문개강

기장주부  
실업자  
직업업자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수강료 환급  
출석률 80%이상시 수업료의 50%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무관\*

전국 최강의 강사진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유명 출판사 저자적강\*

탁월한 합격 시스템  
출결관리, 학습성취도에 따른 개별 분석지도  
자습실, 사물함 무료 사용

한빛 A+ 현대고시학원 236-2467~8  
(동부경찰서 옆)

### 국가직/ 지방직 시험대비

www.mdgosi.co.kr

## 공무원대특강

개강 3월 2일  
=이강민 진행=

100% 출석식, 수강료100% 환불  
문제풀이 수강료: 100,000원

### 김중규 행정학문제풀이 특강

300명 선착순 접수, 수강료 60,000원. (개강: 2007년 4월 9일(목), 4월 12일(목) 16:00~22:20), 교수 김중규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 222-4560

### 2007년(上) 제 17기 한자·한문지도사 자격연수생모집

모집요강

- 모집기간: 2007년 2월 3일(월) ~ 3월 10일(화)
- 개강일시: 2007년 3월 10일(수) 09:00, 서울·광주·대구·부산
- 지원대상: 20세 이상 국민, 대학생, 거동·장애·동맹·외국인(외국인)
- 모집인원: 1단계 과정(신규) 300명, 2·3단계 과정(연임) 100명
- 수업기간: 2007년 3월 10일(수)~2007년 6월 23일(토) 14개월, 15주
- 수업시간: 주 1회(9시~14시) / 1회(14~19시) / 주 1회 수강
- 수강료: 1~4단계 각 30만원, 2~3단계 합계 10만원 별도

접수처: 광주광역시 광안로 763-6 호반2차상가 2층 (첨단단지)  
한자·한문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수료 및 졸업후의 특징

- 국립고급교육원 교수, 전문지도사(1급) 발급
-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교육기관, 연구소에 취업
-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1급) 자격증 취득
-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사(1급) 자격증 취득

제 7회 전국 한자·한문 3·2급 지도사 자격검정시험 공고

- 일 시: 2007년 7월 7일(토) 15:00
- 장 소: 광주광역시 호남고시학원 및 전국시도본부
- 일 시: 2007년 5월 25일(토) 16:00(3주) \*공시지역: 국민신문고 응시가능
- 응시료: 3급지도사: 1단계 70천원/2급지도사: 1,2단계 100천원

광주지역본원 062)971-4747, 972-4747, FAX.973-4747 (01)973-4477, 휴.017-610-9393, 017-609-9393

### 공시생들에게 가장 주목받는 한빛 - www.hanbitgosi.co.kr

## 2007 국가직/ 지방직대 공무원

개설과목: 행정학, 교육행정학, 사무직, 법전법, 검찰직, 사법직, 군무원, 출입국관리, 교정, 농업직, 전신직, 기술직

일교정직특채 800여명 (2007년 상반기)

일문제풀이 한빛이 하면 다들 합격한다!

### 한빛공무원학원

개강 3월 2일  
북구청 건너편 전남대 후문앞 ☎234-0324  
(출/박수만 매일 첫진도 개강)